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2019 · 8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움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맑고 향기롭게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19 / 8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외화도 좋지만
산다는 것 그린다는 것	08	인간이 부재(不在)한 그림의 시대
길상사 시간여행	14	성북동 길상사 터의 역사 ⑤
나의 아름다운 벚꽃 동산	20	출가 4박 5일
아름다운 마무리	24	8월 결연 대상자 - 강옥순(가명)
인권 야단법석	26	인권을 실현하는 장으로서의 자원봉사활동
나눔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30	사회를 위한 기업이 되자
향기나는 우체통	33	사람이 산다는 것
시심청심	36	별헤는밤
옛날 사람처럼 먹어라	38	블랙푸드, 가지로 만든 밥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41	
길상사 소식	49	

·이가온「不二」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현대미술전공
불교의 불이(不二)사상을 화폭에 담아내는 화가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시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시다.

(사)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9년 8월 1일 발행 / 통권 294호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발행인 및 편집인 이형준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주소영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유경은
대구모임 : (053)753-888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

외화도 좋지만

글 • 법 정(法 頂)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 금년 들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뿌린 관광 외화가 벌써 1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한다. 이런 상태로 나가면 금년에 목표했던 애초의 액수보다 훨씬 웃돌 거라고 당국에서는 만면에 희색이다. 관계 당국이 아니라도 싫지 않은 일이다.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해외에서 피나는 경쟁을 해야 하는 것에 비하면 얼마나 손쉬운 일인가. 제 발로 걸어 들어와 뿌리고 가는 외화를 우리는 앉은 자리에서 거두기만 하면 된다.

우리들이 잘살려면 외화를 많이 벌어들여야 한다는 것은, 초등학생들까지도 교과서에서 배워 익히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은 오로지 외화 획득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생각해 볼 일이다. 관광객들이 뿌리고 간 그 외화를 거두기만 하면 그것으로 셈이 끝나는 것인가.

외국 관광객 가운데서도 그 절대다수가 일본인들이라고 한다. 박물관이나 고궁, 그 밖에 구경거리가 될 만한 곳이면 으레 일본인들을 태운 전세 버스가 허리에 띠를 두르고 늘어서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용해야 할 장소에서까지 거침없이 떠들어대고 시시덕거리는 일을 자주 보게 된다. 오만하고 불손한 그들의 태도에 우리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과거에 대한 고정관념에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무례한 태도가 돼먹지 않았다.

그들이 우리나라를 즐겨 찾아드는 이유는 새로워진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들 가운데 대부분이 '기생 파티'에 최대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보아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들은 자기 나라에서 다음과 같은 선전 팸플릿을 보았을 때부터 기대에 부풀어 오른다.

'한국의 정서인 기생 파티를 즐기지 않으시렵니까? 워커힐 카지노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고, 강정제인 인삼을 실컷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중년 이상은 일본어를 할 줄 알므로 언어 장벽도 없습니다.'

일본인들의 우리나라 관광 일정에는 반드시 기생 파티가 들어 있다고 한다. 자기네 나라의 '게이샤'보다 아름답고 고분고분한 기생에게 매혹되어 한 번 온 사람이 다시 오는 경우가 많단다. 심지어는 일본 국내에 간다고 속이면서,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이 자기네 국내 여행보다 값이 덜 드니까.

우리들도 잘살아야 한다. 그러나 떳떳하고 당당하게 잘살아야 한다. 따라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서 잘사느냐가 문제다. 이제 경제 동물은 그들만의 칭호가 아니다. 문제는 여기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어떤 석간지의 '조류潮流' 난에는 다음과 같은 독자의 글이 실려 있다.

'5월 20일 경복궁에서 미술 수업을 받을 때다. 15명쯤 되는 여대생들이 한 일본 관광객을 둘러싸고 서로들 일본어로 대화를 해보려고 아우성이었다. 그때 다른 일본인이 오니까 절반가량의 여학생이 우르르 그리고 몰려가는 것이었다. 일류 대학교의 배지를 달고 있는 여학생들이었다. 그뿐 아니라 처음 보는 일본 남자와 마치 연인이나

되는 듯이 우리들 앞에서 거침없이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그들이 가짜 여대생이라 할지라도 문제는 거기서 거기다. 언제부터 우리 누이들이 그들 앞에서 그토록 천연덕스럽게 변해 버렸느냐는 것이다. 우리는 씁쓸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6·25 전쟁을 통해 우리들의 모든 질서가 풍비박산이 되었을 때, 살아남은자들끼리 연명하기 위해, 오로지 목숨을 이어가기 위해 코쟁이들이 진을 친 기지촌 언저리에서 몸을 팔아 가며 살던 우리 누이들의 슬픈 모습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그것은 동족상잔에 못지않은 겨레의 비극이었다. 그때의 업력은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머리만 좀 길어도 가위질을 하고, 치마 길이가 짧다고 법으로 다스리려는, 지극히 도덕적이요 윤리적인 당국에서, 왜 기생파티처럼 부도덕한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체하고 있는가. 외화 획득을 위해서라면 모른 체해 두자는 것인가. 외화도 좋지만 민족의 긍지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일본인에게 향하는 그 상식 이하의 비위 맞추기는 우리 누이들에게만 있을 것 같지 않다. 일본의 어떤 각료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서울 갈 때마다 어찌나 성대한 대접을 받는지 오히려 고통을 느낄 지경이다."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대접을 했기에 오히려 고통을 느낄 지경이라고 뻐기는가. 이렇게 해야 우리가 잘살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하지 않고는 '호혜 평등'이 유지될 수 없단 말인가. 그 각료는 또 이와 같이 호기를 부린다.

"나는 일본의 돈주머니를 쥐고 있는 만큼 한국을 위해서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오늘 우리나라가 일본의 돈주머니 앞에서 이토록 처참하게 되어 버렸는가 싶으니, 새삼스레 역사의 굴곡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일제의 무자비한 폭정 아래 수없이 죽어간 선열들의 영상이 떠오른다.

우리가 잘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어디 외화만이겠는가. 물량의 그늘에 가려 시들어가고 있는 사람의 일도 좀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 민족의 얼이 병들고 있다면, 그 어떤 외화로도 치유할 길이 없다. 외화도 좋지만 민족의 긍지도 생각해야겠다. 외화도 좋지만 내화內貨의 체면도 좀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1973)

–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법정 스님 영상 강연 & 법문

"법정 스님 입적 9주기 해를 맞아 법정 스님의 영상 강연과 다시보는 법문으로 일요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일정 : 3월 ~ 11월, 4째 일요일**
(4째 일요일외에는 일요 가족법회가 봉행됩니다.)

■ **시간 : 오전 11시(사시예불 후)**

■ **장소 : 설법전**

인간이 부재(不在)한 그림의 시대

글 • 최종태

지나간 백 년, 이른바 20세기 세계 미술사를 총별할 적에 주목할 만한 현상이 눈에 확 들어온다. 백 년간 인간의 형상이 그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림에서 자연의 형상이 사라졌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속단해서 말하자면 자연과 인간의 문제가 20세기 그림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극소수의 몇몇 예술가를 빼놓고는 작품 주제에서 자연과 인간이란 것은 관심 밖의 문제가 아니었나 싶다.

어떤 화가는 거리 풍경을 많이 그렸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적막강산이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이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다. 인체는 더러 등장하지만 그림의 도구로 쓰였지 인간에 대한 관심은 아니었다. 아름다움을 추구한 것은 누가 보아도 분명하다. 그러나 예술에 인간 부재 현상이 일어난 것은 생각해 볼 일이 아닐까 하는 반성이 생긴다. 아름다움은 있으되 인생이 없다.

조각가로는 자코메티가 있고 화가로는 루오와 프로이트의 손자로 더 잘 알려진 루시안 프로이트(Lucian Freud)가 있다. 루시안 프로이트는 최근 90세 나이에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몇 해 전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큰 전시회를 한 일이 있다. 이들은 인생과 예술을 하나로 보고 끝까지 투쟁했다. 둘 다 고뇌에 찬 인간상을 처절하다 할 만큼 그 핵심을 찾아 끝까지 추구한 예술가다. 어찌 보면 순교자와도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인간은 다 어디로 갔는가. 19세기에 이미 그림에서 어떤 이야기성이라든지 종교라든지 하는 미 이외의 것은 무엇이든 다 제거했다. 사람을 그려도 사과나 그릇을 그리는 것과 동일한 생각으로 오직 색채와 형태의 연구에만 몰두했다. 그 뒷날 '다다'라는 일단의 그룹이 생겨나고 그들에 의해 그림 냄새나는 것까지 박살 났다. 그리하여 예술가들은 오로지 일념으로 '아름다움' 하나만을 위해 헌신했다.

그것으로 인해 유사 이래 찾아볼 수 없는 순수미의 대파노라마가 만들어졌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인간 부재의 예술 세계를 형성한 것이다. 여기에 역행하는 예술가들은 철저히 소외당했다. 그중에는 프랑스에 드랭이라는 이가 있고, 미국에 벤 샨이라는 이가 있다. 발붙일 한 치의 땅도 없었다. 자코메티가 살아남은 것은 기적과도 같다.

그는 20세기의 기적이다. 그는 자기가 마지막 화가라는 예언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 그 말은 맞았다. 마침내 세기말에 와서야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예술이 진리 탐구의 일환이라 할진대 어찌 삶의 문제를 외면할 수 있는가 하는 반성이 시작된 것 같다. 이른바 순수미를 탐구하는 모더니즘 시대는 종말을 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생과 사[生死], 인간과 환경, 하나의 지구촌을 생각하게 되었다.

인간 사회에서 정(情)이란 게 옛말이 되어버렸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는 거래만이 있다. 국제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다. 사람들이 잘살려고 자연을 무자비하게 훼손했다. 편하게 잘 사는 것이야 좋은 일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자연이 파괴된다.

최근 텔레비전 뉴스에 이상한 보도가 나왔다. 물새들이 김 농장을 망가뜨렸는데 어민들이 어찌할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새들이 배 농사를 망친다고 야단이 났다. 공기총을 쏘아대고 허수아비를 세워놓아도 소용이 없다. 얼마 전에는 독수리들이 굶어 죽었다. 멧돼지가 마을로 내려와 감자밭이랑 모두 망쳐놓았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무섭지 않을 수 없다. 짐승들이 먹을 것을 사람들이 차지한 것이다. 새들의 땅을 사람들이 망가뜨려 놓았다. 그러니 그들은 어찌 살란 말인가.

그림이 오로지 아름다움을 위해 존재하고자 노력하는 동안 세상은 세상대로 나만을 생각하는 삶을 산 것이다. 어찌 이 지구상에 사람들만 잘살고 다른 생명체들은 없어져도 될 일이란 말인가. 공생공존 원리가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 최근에 와서야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이 살아야 한다는 깨달음에 눈뜨기 시작한 것 같다. 그림이 미(美)만을 추구하는 동안 사업가들은 돈만 생각하고 권력자들은 권력을 누리려고만 생각했다. 우리는 지난 백 년간 숱한 전쟁을 겪었다. 누구를 위한 전쟁이며 무엇을 위한 전쟁이었나? 그럴 때 철학자는 무슨 역할을 했으며, 종교는 또 어떤 일을 했는가?

지난날 일본인들은 아시아 천지를 짓밟아 놓고서도 도무지 반성하는 빛이 없다. 자꾸 감추려고만 한다. 살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반성해야 함을 모르는 것이다.

우리가 새들의 땅을 빼앗아 놓고 농사를 망친다고 새들만 나무란다. 새들이 김 농사를 망치고 배 농사를 망쳐놓는다는 뉴스를 보면서 자연이 인간을 위협한다는 것을 실감한다. 이 불길한 징조를 보면서 다들 건너편 동네 불 보듯 남의 일같이 생각한다. 이 불감증이 사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나만의 우려일까?

지상의 모든 것, 천태만상이 제각각이 아니다. 우리는 지난 한 세월을 부분만 찾다 전체를 놓치고 있었다. 우리는 지금 부분과 전체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당도한 것 같다. 여러 층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 위에서 이 일을 해야 한다. 지금은 우리가 한 기능인으로 전락한다는 것을 자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우리는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다. 총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고 있다. 지금 우리 교육을 보자. 총괄하는 기능이 없다. 조선 시대 500년의 교육 지표는 공자였다. 쉽게 말해 공자는 군자의 길을 가르친 분이다. 군자란 인격의 최고 가치를 구현한 사람을 일컫는다.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서 그런 것을 배우는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도 온 세계가 다 그렇지 않나 싶다. 그러니 사람들이 하는 짓이 약육강식이다. 무엇이든 상관없이 나보다 약한 것이면 다 잡아먹는 것이다. 가치가 사라진 세상 바다에는 힘의 논리만 있다. 힘을 갖고 볼 일이다. 돈이 힘이다. 돈이 세상 모든 것을 좌우한다. 이른바 물질만능주의라 한다. 가치라는 말은 사전에나 있는 말이 되어버렸다. 종교 쪽에서 말은 하지만 공염불이다. 사람이 없는데 가치를 어떻게 찾겠는가.

시냇물이 모여 강물이 되고 작은 강물들이 모여 큰 강물을 이루고, 마침내 바다를 이룬다. 바다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깨끗한 것, 더러운 것 가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만물을 생성한다. 모든 생명체가 바다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바다에는 소금이란 게 있어 썩지도 않고 모든 생명을 생성하며 모든 것을 수용한다. 바다는 가장 낮은 데 있다. 시인들은 바다를 노래한다. 우리가 고향을 생각하듯….

가치의 근본을 진선미라고 한다. 진과 선과 미는 하나라고 동서의 모든 성현이 말했다. 절대 불멸의 진리라고 한다.

그런데 요즘을 보라. 진선미를 하나로 말하는 사람들이 없다. 하나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드문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각각의 전문가들이 있다. 그리하여 끝없는 분화가 이루어진다. 분화란 작은 전문으로 갈라지는 것이다. 그럴수록 본원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바라는 본성이 하나 있다. 행복이라는 것이다. 행복이란 종합에서 생기는 것이 아닐까? 갈라질수록 외로워지고 공허해진다.

요즘 세상에는 종합의 인간이라 할까, 그런 사람을 쓸데없다고 한다. 세상은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저들은 누구입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 이들이며,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알 듯 하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막상 생각해 볼진대 간단치 않다. 확실하게 알 수 없다는 말이다.

내 삶의 현재가 그것을 보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그렇다. 참으로 옳은 것이란 무엇인가, 참으로 착함이란 어떤 것인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은 어떤 모양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인간에게 영원한 숙제다.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들만이 이 영원한 숙제를 풀어내기 위해 모험을 한다. 그 모험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모험이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예술가들에게 보낸 편지에 '미는 성령의 불티'라고 표현했다. 성령은 보이지 않는다. 미는 보이는 현상이다. 미란 것은 성령의 보임새라고 풀어 말해도 틀린 일은 아닌 것 같다. 이 분화의 시대에 참으로 의미심장한 메시지로 들리는 것이다.

지난 백 년간에 걸쳐 미술가들은 인간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먼 훗날 이 시대가 어떻게 평가될지 궁금하다. 인생을 제외하고 아름다움이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서양 화가 키리코가 그린 거리 풍경은 인적 하나 없이 고요하기만 하다. 그 고요함 속에 두려운 공기가 있다. 우리는 지금 이처럼 공허한 공간 속에서 살고 있다. 외롭다. 외롭지 않은 세계가 그립다. "무거운 짐을 진 이들아, 다 내게로 오라." 꼭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다.

최종태(1932 ~)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김종영 선생과 장욱진 선생을 만났다. 1958년 조소과를 졸업하고 1959년부터 국전에 출품하여 문교부장관상과 추천작가상을 받았다. 그림과 조각 못지않게 글쓰기를 좋아하여 '나의 미술 아름다움을 향한 사색' 등 7권의 수상집과 '교회조각' 등 8권의 화집을 냈다. 한국가톨릭미술상·서울시문화상·대한민국예술원상을 받았고,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장을 지냈으며, 지금은 김종영미술관장·서울대 명예교수·대한민국예술원회원이다.

성북동 길상사 터의 역사 ⑤

글 • 홍정근

청암장 부지의 주인이던 조봉희는 딸 김소산의 사망과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청암장을 비우게 된다. 이후 주인 없는 청암장 부지에 8240부대(켈로부대·KLO)가 주둔하여 군사훈련을 하게 되면서 일반인은 이 부근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되었다.

8240부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자면, 1950년 한국전쟁 시 북한군의 진격으로 6월 29일 서울이 함락되어 부산까지 내려온 국군과 유엔군은 1950년 8월, 9월 낙동강 전선에서 총반격을 시작하고,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하면서 서울을 수복하게 된다. 그리고 통일을 위해 북진하던 중 중국 공산군의 공격으로 1951년 1월 4일 다시 서울이 함락되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2개월 후인 1951년 3월 중순 서울을 수복하였다.

1951년 이후 전선이 중부지역에서 교착되자 유엔군은 인민군과 중국군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북한 지리에 밝은 현지 출신 유격대원들로 구성하여 미 제8군 관할로 3개 부대를 창설한다. 그중 1개 부대가 주한 8240부대인데 서북해안의 유격부대뿐만 아니라 1948년부터 대북첩보 활동을 벌였던 KLO(Korean Liasion Office, 극동군사령부 한국연락처)부대까지 포함하게 되어 '켈로부대'라고 불렀는데,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자 유격부대의 필요성이 없어지면서 해체되었다.

켈로부대가 청암장 부지에 주둔한 사실에 대해서는 필자 또한 2014년 가을, 켈로부대 소속 첩보원으로 활약했던 4~5명의 노병(老兵)이 길상사에 잠시 방문하였을 때, 60년 전 당시를 회상하며 훈련받았던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바 있는데, 극락전과 길상헌 건물 두 동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시사 종합월간지 '신동아 1998년 1월호'에 길상화 보살의 회고가 실려 있다.

명당(明堂)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좋은 사람, 성품이 바르고 복스러운 사람이 사는 곳(吉人住處)이 곧 명당』이라는 옛 선사의 말이 있다. 터가 좀 세 보이긴 한다. 평범한 살림집보다는 공공시설이 들어서면 괜찮을 듯도 한 자리다. 명당이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알 일이다. 법정은 아무 조건 없이 이 터를 시주한 김영한 할머니에게 「길상화(吉祥華)」라는 불명(佛名)을 주었다.

「길상화 보살」은 수십 년 전을 이렇게 회고한 적이 있다.

『가끔 이 부근을 지나치는 일이 있었지요. 지금처럼 주변에 저택들이 있던 때가 아니었어요. 그냥 산중이었지. 호랑이가 나타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전란 중에 켈로부대가 주둔할 때는 무슨 산적 소굴처럼 으시시했지요. 나는 이 터가 첫눈에 마음에 들었어요. 포근하고 마음이 턱 놓이고… 이런 곳에 내가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 그 땅을 소유할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 그냥 끌리는 거였어요. 말로는 참 표현하기 힘든 그런 마음의 조화였어요. 내 첫 남자를 만난 이래 처음으로 경험하는 그런 강렬한 이끌림이었지요. 신기한 일이라고 할 밖에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저는 그야말로 우연한 기회에 그 터의 주인이 되는 때를 맞게 되었습니다.』

– 박윤석 기자의 인물탐험 '도심 속의 가난한 절' 길상사 회주 맡은 법정 스님 기사 중에서

한국전쟁이 끝난 1955년 청암장 부지는 조봉희에서 김영한으로 주인이 바뀌는데, 그 과정에 대해 원경 스님은 《박헌영 트라우마》(2013년 손석춘 지음)에서 당시 국회민의원 이재학과의 연관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김영한은 1951년 매입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지만(인터넷에도 1951년 매입한 것으로 검색됨), 등기부 등본에 1955년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영한은 청암장을 인수한 뒤 대원각으로 탈바꿈시킨다. 성북동은 1960년대 초중반까지 정·재계의 별

開業人事
新春을 맞아 尊堂의 萬福을 祝願하나이다
今般 여러분의 大苑閣에서는 EXPO 70觀光의 여물맞아 관광객유치와 더불어 大苑閣을 애호하여 주시는 고객을 모시고저 새로운 단장을 마치고
5月4日 개업 하였읍니다.
江湖諸賢의 애호를바랍니다
1970년 5월 일
大苑閣
서울특별시城北區城北洞
전화 ☎2818. ☎0034

대원각 1970년 5월 6일 자 경향신문 광고

장 터였지만, 1967년 성북동 산 25번지 일대의 숲속 풍치지구 약 10만 평이 대규모 외국인 주택단지로 책정되고, 1968년 북악스카이웨이 공사가 진행되면서, 1970년 성북동에서 청와대와 광화문으로 이어지는 삼청터널이 개통된다. 그러자 대원각 또한 그 명성이 하늘을 찌르면서 돈 꽤나 주무르던 사람들이 앞 다투어 찾아오게 되는데 1970년대 삼청각, 청운각과 더불어 이름을 떨치게 되며, 1980년대에는 고급 한정식 식당으로 변모한다.

1976년 〈무소유〉가 출간된 이후, 법정 스님은 〈무소유〉로 인해 대중들에게 유명한 스님이 되었고, 월간 잡지 〈샘터〉와 유명 신문에 수필을 연재한다. 1987년 〈무소유〉를 읽고 감동한 김영한은 법정 스님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고려사에 잠시 머물고 계신다는 소식을 평소 가깝게 지내던 고려사 화주 김대도행 보살에게 전해 듣고 스님을 처음 만나게 된다. 이 자리에서 김영한은 대원각 부지를 시주할 테니 절(寺)로 만들어줄 것을 간청했다.

하지만 스님은 "못 받겠다."고 손사래를 쳤고, 김영한은 "제발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장장 10여 년에 걸친 해괴한 실랑이가 벌어진다.

1992년 4월 19일 조계산 불일암을 떠나 강원도 산골 화전민이 살다 버린 오두막을 빌려 홀로 수행에 들어갔던 법정 스님은 1993년 8월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주창한다. 평소 번거로운 일은 싫다고 어느 절 주지 자리도 맡지 않고, 강연이나 설법도 사양하던 스님이 "중이 밥값은 하고 가야겠기에 이 일 한 가지만은 꼭 하고 싶다."며 뜻을 함께하던 분들에게 화두를 던지자 모임의 상징인 연꽃 캐릭터를 만들고 실천 덕목을 구체화하였다. 이후 뜻 있는 분들과 준비모임을 가지고, 1994년 3월 26일 서울 양재동 구룡사에서 '첫 출발 실천 큰 모임'을 갖고 연꽃 스티커를 나누고, 소년 소녀 가장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마음과 세상과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는 일을 조용히 전개했다.

서울 종로구 운니동 월드 오피스텔 방 한 칸을 빌려 쓰고 있던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회원들이 모일 장소가 없어 남의 신세를 져야 했고, 사무실 비용도 큰 부담이었다.

그때에도 김영한은 여전히 대원각을 법정 스님께 시주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스님은 여전히 사양하고 있었다. 그러자 법정 스님과 뜻을 함께하는 어른들이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라도 '근본도량'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시주를 받을 것을 거듭 간청하였고, 법정 스님은 깊은 고심 끝에 "이것도 시절 인연이니 할 수 없구나."하며 시주를 받아들인다.

그리하여 사찰을 운영하는 것만 스님이 관여키로 하고, 소유권은 개인이 아닌 송광사로 등록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1995년 6월 대한불교 조계종 송광사 말사 '대법사'로 등록하였고, 모든 부지의 등기 이전을 마무리한 것은 1996년 5월 20일이다.

김영한은 억척같이 모은 재산을 '무주상보시'로써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이루었고, 법정 스님은 한결같이 '무소유'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거룩한 승가(僧伽)의 진면목을 느끼게 된다. 이후 법정 스님을 따르는 재가불자들의 정성과 신심이 모이면서, 기존 건물 40여 채 중 30여 채만 남겨 수리하여 1997년 12월 14일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가 태어나게 되고, 김영한은 길상화(吉祥華)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그리하여 조선 후기 백인기의 별장으로부터 시작된 사유지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실천하는 공공의 재산이 된 것이다.

1997년 12월 14일 길상사 창건 법회

길상사 창건 9주년 기념 법회에서 법정 스님은 "길상사(吉祥寺)라는 절 이름은 이전에 프랑스 파리에 송광사 분원으로 길상사라는 절을 만든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절 이름을 길상사라 하니 참 좋았기에 여기도 같은 이름을 쓴 겁니다. 체인점 이름이 아닙니다. 송광사의 옛 이름이 길상사이기도 해서 그 인연으로 지은 것이기도 합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길상사 창건 11주년 기념 법회에서는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이 없었다면 오늘의 길상사는 없었을 것"이라며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이란 말을 들을 때마다 몸과 마음에 전율 같은 것을 느낍니다. 과연 제 자신이 맑고 향기롭게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 묻게 됩니다.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움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맑고 향기롭게'라는 이 말은 길상사가 존속하는 한 인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화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당부하였다.

길상사를 찾는 시민들

자연경관이 아름다워 양반과 문인들이 즐겨 찾던 과거의 성북동이 이제는 전통과 낭만을 찾는 관광객들과 여러 불자들이 길상사를 성북동 대표 명소로 꼽으며 찾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절에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의 쉼터가 되고 있다. 또한,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회원과 봉사자들은 법정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욕심내지 않으며 우리의 마음과 세상과 자연을 본래 모습 그대로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인 활동을 25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결같이 펼치고 있다.

이제 길상사 터의 역사에 주역으로 계셨던 분들은 우리 곁을 떠나고 없지만, 여전히 길상사 경내에서 옛 어른들의 향기는 오롯이 느낄 수 있다. 이러한 향기를 잘 가꾸어 물질문명의 발달로 인한 자아상실과 공동체 파괴, 현실 앞에 다가온 환경과 생태위기 등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여러 아픔을 치유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지혜와 자비의 맑고 향기로움이 널리널리 퍼져나가는 사찰이 되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출가 4박 5일

글 • 백형찬

조계산의 차갑고 세찬 계곡물이 바위에 부딪혀 하얗게 부서져 흐르던 그 캄캄한 밤을 잊을 수 없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다.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기 위해 경복궁을 찾았다. 녹음이 우거진 고궁을 거닐다 보니 머리가 한결 맑아졌다. 건춘문을 나섰다. 동십자각 방향으로 걷다가 불교 서점이 눈에 띄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맑은 향 내음이 나를 맞이한다.

당시 명상에 관심이 많았다. 명상 관련 책들을 살펴보다가 한쪽 코너에서 전남 송광사에서 발행한 신문을 발견했다. 판형도 독특하고 활자체도 부드러웠다. 신문을 펼쳤다. 하단에 '출가 4박 5일'이라는 글이 눈에 들어왔다. 출가는 '세속의 인연을 버리고 수행 생활에 들어간다'는 뜻인데, 출가 4박 5일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니 산사에서 스님들과 똑같이 닷새 동안 생활한다는 것이었다. 순간 '출가'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신청서를 작성해 송광사로 보냈다. 보름 만에 답장이 왔다. '동참을 허가한다'는 합격증이 온 것이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고속버스를 타고 전남 순천에 도착했다. 다시 시내버스로 갈아타고 송광사로 향했다. 송광사는 우리나라 삼보사찰 중 하나다. 열여섯 분의 국사를 배출한 유서 깊은 도량이다. 고려의 보조국사 지눌을 비롯해 고승들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이다. 일주문을 들어서니 울창한 전나무 숲이 나를 맞았다. 종무소에는 수련회 참가자들로 북적였다. 바구니가 하나씩 건네졌다. 속세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집어넣으라는 것이다. 소지품을 모두 꺼내 넣었다.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도 풀어 넣으라고 한다. 세속의 시간을 잊고 오직 수행에만 전념하라는 뜻이다. 잿빛 수련복 한 벌, 흰 고무신 한 켤레, 회색 방석 한 개를 받아 들었다. 수련 기간에 꼭 지켜야 할 규칙이 전달됐다. '절대 침묵'이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무조건 퇴소'였다. 수련생들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다. 수련복으로 갈아입었다. 수련할 곳은 송광사 천 년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사자루'였다. 사자처럼 용맹스럽게 정진하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다.

본격적인 수련은 새벽부터 시작됐다. 도량을 청정하게 한다는 도량석 의식이 행해졌다. 이어서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을 깨우기 위해 법고와 범종이 울렸다. 목어와 운판을 두드리는 소리도 들렸다. 수련생들은 대웅전에 모여 스님들과 함께 예불을 드렸다.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을 함께 소리 내어 읊을 때는 마치 새로운 세상에 들어서기라도 한 듯이 신비로웠다.

아침 공양 시간이다. 공양은 부처님께 음식을 올리고 밥을 먹는 것이다. 공양은 몸을 살찌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도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다. 발우 속에 든 음식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먹었다. 발우를 씻은 물까지 다 마셨다. 오전에는 스님들에게 강의를 들었고, 오후에는 참선을 했다. 참선은 결가부좌로 했는데 매번 무릎이 터져 나가는 고통을 감수해

야 했다. 참선할 때는 꼭 잠이 쏟아졌다. 스님께 합장한 채 고개를 숙인다. 그러면 죽비로 내 등을 사정없이 내리쳤다.

출가 4박 5일의 마지막 저녁이었다. '차를 나누며' 시간이다. 수련회를 총책임지고 있는 원장 스님이 등장했다. 바로 법정 스님이었다. 꼿꼿한 자세와 군더더기 없는 말씀으로 침묵의 의미를 바르게 일깨워 주셨다. 말씀이 끝나자 단맛 나는 여름 과일과 향기로운 차가 나왔다. 금세 분위기가 환하게 밝아졌다.

바로 그때, 갑자기 전갈이 들어왔다. 사흘 내내 쏟아진 폭우 때문에 계곡물이 불어 식수를 끌어 올리던 양수기가 떠내려갔다는 것이다. 그래서 젊은 스님들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양수기를 구하러 마을로 내려갔다고 한다. 또 전갈이 들어왔다. 전남 지역에 내린 집중 호우로 많은 사람이 실종되고, 송광사는 고립됐다고 했다. 수련생들이 웅성거리며 얼굴이 굳어졌다. 그때 계곡에서 휩쓸려 내려온 큰 바위들이 사자루 기둥을 마구 때렸다. 수련장 사자루가 심하게 흔들렸다.

극히 불안한 가운데 철야 정진이 시작됐다. 수련생들의 눈빛에는 비장한 각오가 서렸다. 오늘 밤에는 1080배 절을 해야 한다. 지도 스님의 목탁 소리에 맞춰 다 함께 큰 소리로 "석가모니불!"이라 외치며 절을 하기 시작했다. 온몸에서 땀이 비 오듯 흘렀다. 속옷은 물론 수련복과 방석까지도 흥건히 젖었다. 무릎 통증은 사라진 지 오래다. 마비된 무릎은 기계처럼 움직였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른다.

어느덧 먼동이 터오기 시작했다. 드디어 철야 정진이 끝났다는 목탁 소리가 울렸다. 모두 그 힘들다는 철야 용맹정진을 해낸 것이다.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흐느끼는 소리, 엉엉 우는소리, 통곡하는 소리도 들렸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내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다. 연일 쏟아지던 비도 멈췄다. 음식을 담아 먹던 발우도 깨끗이 닦았다. 수련복도 곱게 접어 반납했다. 다시 속세의 옷으로 갈아입었다. 바구니에 담았던 소지품도 돌려 받았다. 시곗바늘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막상 일상 속으로 돌아가려니 내키지 않았다. 이런 우리에게 법정 스님은 귀한 선물을 주셨다. 참선하는 모습을 그린 둥근 부채였다. 다시 속세로 돌아가면 이곳 송광사에서의 출가 4박 5일을 기억하며 바르게 살라는 마지막 가르침 같았다. 그해 여름, 송광사에서 보낸 출가 4박 5일은 내 생애에서 가장 잊지 못할 날들이었다. 그 캄캄한 밤이 무척이나 그립다.

백형찬 • 서울 영등포에서 태어나 고려대에서 생명 과학자를 목표로 공부했다. 짧은 직장 생활을 뒤로하고 교육학박사학위를 받아 현재는 서울예술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수필가로 등단하여 '출가 4박 5일'로 작품상을 받았으며, 저서로는 〈예술을 꿈꾸는 젊은이에게〉〈예술혼을 찾아서〉〈죽음을 읽다〉 등이 있다.

길상사 2019년 여름 선 수련회

- **일시 :** 8월 8일(목) ~ 8월 10일(토)
- **대상 :** 성인
- **접수 :** 길상사 홈페이지
- **50명 정원, 선 접수 후 입금 완료 순으로 마감됩니다.**
- **계좌 :** 신한은행 100-021-136827 / 길상사
- **문의 :** 02-3672-5945 / kilsangsa@hanmail.net

8월 결연 대상자 – 강옥순(가명)

이제 어디로 가야 하죠?

무더운 여름 힘들게 몇 걸음 옮겼을 뿐이지만 금세 차오르는 숨과 흘러내리는 땀으로 주저앉습니다. 쉬었다가 걷기를 반복하며 성인 남성이 다니기에도 벅찬 언덕길을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리는 분은 올해 78세인 강옥순(가명) 어르신입니다.

어르신이 다니는 길에서 재개발을 축하한다는 현수막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전셋집으로 LH에 보증금 6천 2백만 원을 빌려 어렵게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0월이 되면 이 집을 비워줘야 하는 형편이어서 앞날이 막막합니다.

갈 곳만 있다면 어르신도 이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올해 6월 어르신께 가슴 아픈 일이 있었고 그 일로 지금까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둘째 딸이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둘째 딸은 사업에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고 결국 암 말기가 되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딸이 괴로워하는 모습과 마지막을 지켜봐야 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픈 마음을 추스르기도 전에 어르신은 매일 살 곳을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연이어 겪고 있는 어르신께 희망을

고령에 어르신은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 심하여 서울 의료원에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는 심장의 대동맥 경화로 쓰러져 응급실에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어르신은 세상을 떠난 둘째 딸을 포함하여 세 명의 딸이 있습니다. 첫째 딸과 함께 살았지만 의류 사업을 시작하였다가 사업이 망하면서 딸과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나머지 딸들도 자신의 가정을 보살피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행히 수급자로 등록이 되어 수급비를 받아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수급비는 한 달에 약 50만 원입니다. LH에서 지원하는 보증금의 이자 10만 원과 공과금 및 통신료 10만 원을 내고 나면 30만 원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에 이상이 생겨 비급여인 CT 촬영을 하고 나면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로 인해 안정적인 주거로 옮겨야 하는 문제도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맑고 향기롭게에서는 연이은 고통에 힘들어하시는 어르신이 삶에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생계비를 매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총 24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13–787953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캠페인은 소식지 소개와 더불어 인터넷 다음 카카오 '같이가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권을 실현하는 장으로서의 자원봉사활동

글 • 서미화

지금까지 '인권'과 '자원봉사'라는 두 단어는 나란히 등장하는 일이 좀처럼 없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인권이 사회구조의 변혁과 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발전해온 것에 비해 자원봉사(volunteering)는 전통적으로 지역사회와 국가·인류사회를 위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의미를 형성해 온 탓에 인권과 자원봉사가 만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 여겨진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은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는 차별과 억압에 대한 반발로, 산업혁명 이후에는 열악한 근로환경, 빈부 격차 등에 대한 사회적 약자의 보호 요구로, 20세기 초에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노동권, 교육권,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등을 보장하는 사회권의 영역에서 인권이 발전해왔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로 이해되는 인권은 불평등과 차별로 인해 모두에게 동일하게 실현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불합리한 사회제도에 대항하며 권력의 재분배나 사회구조의 변혁을 통해 인권을 획득해온 과정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수반하며 변화 발전해오게 되었다.

그와는 다르게 자원봉사는 사회적 서비스 제공(service delivery), 자조(self-help), 개인과 공동체의 주체화(empowerment) 등 참여에 기반 한 시민 활동들로 사회 변화에 기여해왔다.

이처럼 인권을 획득해온 과정과 자원봉사활동이 실천해온 과정은 사회변화의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두 단어가 주는 느낌이 다른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러다 보니 헌신적인 자원봉사자 중에는 인권이 국가에 저항하고 정치적이고 보편적이지 않다고 느껴 이에 대해 불편해하는 일이 종종 있다.

반면에 인권을 주창하고 옹호하는 사람들은 자원봉사가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의 문제를 무언가 더 우월한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문제로 바꿔놓는 듯한 느낌을 불편해한다. 하지만 '인권'과 '자원봉사'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우리 사회를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 시켜 나가는 지향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자원봉사 현장은 인권실현의 장과 깊이 연관돼 있다.

1950년대 대한 적십자를 중심으로 전후 시설복구를 위한 봉사와 전쟁이재민, 영세민, 군경환자에 대한 급식, 간호 등 인간 생존을 위한 기본적 구호에서부터, 최근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과 대안 친환경 제품들을 소개하는 자원봉사활동 등은 생존권부터 환경권에 이르기까지 인권 전반에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자원봉사자들은 때로는 기본적인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해 한 끼의 식사를 준비하는 손길로 힘을 보태기도 하고 누구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문화 소외계층들과 함께하는 예술공연에 참여하기도 한다. 우리는 흔히 부모들이 자녀가 늘 어린아이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자녀는 어느덧 성장해 있음을 문득 느끼곤 한다.

이처럼 인권과 자원봉사는 만나기 어려운 서로 다른 영역의 활동이라는 인식이 오랫동안 형성돼 왔고,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이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다양한 사회문제를 다루는 현장에서 인권과 자원봉사는 이미 만나고 있다.

인권을 향한 실천이나 자원봉사나 시민들이 우리 사회를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스스로 함께 펼치는 활동이다. 즉 이 둘 모두 우리 시민들이 개척하고 발전시켜온 귀중한 자산이며, 마을 만들기, 사회적 경제, 사회혁신, 기부와 나눔, 시민운동 등과 함께 한국의 시민사회라는 한 울타리를 이루고 있는 '이웃사촌'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권과 자원봉사는 공유하는 사회적 지향과 토대를 기반으로 좀 더 서로를 받아들이고, 연결되며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인권이 소수만을 위한 '권리 찾기'가 아닌 모두를 위한 '나의 일'로 이해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를 통해 좀 더 많은 사람의 공감대와 실천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

인권은 주로 그것을 침해받은 사람들의 문제 제기와 이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옹호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 성과는 주로 관련 법 제도의 마련과 국가에 대한 인권보장의 요구로 맺어진다. 그러다 보니 인권침해를 겪었다고 느끼지 않은 경우, 그리고 국가나 정치를 멀게 느끼는 사람들에게 인권은 낯선 것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인권이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 제도와 요구를 넘어, 자원봉사와 같은 일상적인 참여를 통해 인권을 피부로 느끼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인권을 향한 실천이 소수 사람의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과 함께함으로써 사회적 영향력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자원봉사는 인권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자원봉사는 아직 '불쌍한 사람 돕는'일이라는 협소한 이해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공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이라는 자원봉사 본연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의 잠재력은 생각보다 크다.

당장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지만, 그 눈물의 원인을 생각해 보고 그 원인을 다루는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자원봉사의 의미와 가치를 확장하고, 인권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참여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사는 일에 뜻을 함께해요

청정한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더욱 맑고 향기롭게 가꿀 수 있는 여러 활동이나 참신한 아이디어, 여러 회원,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유해주실 분과의 만남을 기다립니다.

『맑고 향기롭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순수모임으로 나아갈 것을 지향하며,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사는 일에 뜻을 함께하고자 한다면 종교, 종파에 상관없이 손을 맞잡을 것입니다. 뜻을 함께하실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전자 우편 :** clean94@hanmail.net
- **주소 :** 서울 성북구 선잠로 5길 68 길상사내 (사)맑고 향기롭게
- **전화 :** 02-741-4696

사회를 위한 기업이 되자

글 • 곽영미

1936년 1월의 어느 추운 겨울밤, 유한양행 경성 본점에 급한 전보 주문이 도착했습니다.

[파상풍 혈청 긴급 송부]

그런데 얼마나 급했는지 전보에는 보낸 사람이나 병원이 없었답니다. 다른 회사들은 이런 주문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누가 보냈는지 모르니 어쩔 수 없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하지만 유한양행 직원은 전보를 보낸 우체국을 확인해서 그 우체국 근처에 있는 모든 병원에 파상풍 혈청을 보냈답니다. 그런 유한양행의 정성 덕분에 전보를 보낸 병원에서는 무사히 혈청을 받아 귀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장의 허락 없이 모든 병원에 혈청을 보낸 직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돈을 낭비했다고 질책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았답니다. 그 직원은 오히려 칭찬을 받았어요. 유일한 박사님의 정신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유한양행이라는 제약회사를 설립한 유일한 박사님은 이렇게 회사의 이윤보다 사람들의 건강이 우선이었습니다.

한 번은 간부(회사에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직원이 회사에 손해가 될 것 같은 생각에 이렇게 항의를 했어요.

"사장님, 우리도 진통제에 마약 성분을 좀 더 넣어서 팔아요. 다른 회사 제품에 비하면 우리 것은 너무 약해서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그 간부 직원은 말을 끝까지 할 수 없었습니다.

"자네 그걸 말이라고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자네와 오랫동안 같이 일했다니 정말 실망스럽네. 내가, 아니 우리 회사가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면서 돈을 벌려는 그런 회사로 보이나? 나는 병으로 고생하는 동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 이 회사를 설립했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 그런 생각을 갖고 일하고 있어. 자네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나는 더 이상 자네와 같이 일할 수 없다네."

그 직원은 곧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한 곳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유일한 박사님은 기업의 이윤보다 사회적 책임과 공익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유한양행이 설립된 이유는 국민의 보건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일해야 합니다. 기업은 사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1926년에 세워진 유한양행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약·화학 회사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종업원 지주제 회사입니다. 종업원 지주제 회사는 직원 모두가 주인인 회사랍니다. 유한양행은 설립된 지 십 년 만에 직원들에게 주식을 골고루 나눠 주며 모두의 회사로 더욱더 성장해 나갔어요.

유한양행은 누구나 사장이 될 수 있는 전문인 경영 체계랍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한때 유일한 박사님은 아들에게 회사를 잠시 맡긴 적도 있어요. 하지만 아

들의 생각이 회사의 경영 이념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전문 경영가에게 자리를 내주었답니다. 박사님은 누구라도 기업주의 경영방침을 따르고 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사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1971년 3월 11일, 유일한 박사님은 전 재산에 가까운 많은 돈을 사회에 환원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유언했어요.

■손녀에게는 대학 졸업 때까지 학비 1만 달러만 준다.
■딸에게는 유한 중·공고에 있는 묘소 주변 땅 5천 평을 물려준다. 이 땅을 유한동산으로 꾸며주길 바란다.
■아들은 대학까지 공부시켰으니 혼자서 자립해서 살도록 한다.
■나머지 내가 가진 모든 재산, 즉 유한양행 주식 모두를 한국 사회 및 교육 신탁 기금에 기증해 뜻 있는 교육사업과 사회사업에 쓰도록 한다.

기업 기부는 점차 늘고 있지만, 기업인의 개인 기부는 거의 없는 우리 사회에서 유일한 박사님은 참된 기업 정신과 기업인의 삶을 보여 주었습니다. 박사님의 딸 유재라 씨 역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해 화제가 되기도 했답니다.

유한양행 •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약·화학 회사이다. 설립자인 유일한 박사의 창업이념인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직업교육기관인 유한공업고등학교와 유한대학을 세워 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다. 유일한 박사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참 기업가 정신을 실천했다.

사람이 산다는 것

글 • 강인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캐나다에서 살아보니 인권은 만인에게 평등하나 생활습관 중에 보호 우선순위는 분명히 있었다. 그 선후를 가려보았더니 맨 앞자리에 어린이가 있고 다음으로 노인 그리고 여성과 장애인 애완동물이 뒤를 따랐다. 너무 짓궂은 생각이 아닌가 싶어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더니 다들 그럴 거라고 고개를 끄덕여 준 거로 보아 틀린 예측은 아닌 것 같아 다행이었다.

그래서일까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유별남이 각 가정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국정운영에서도 엿보였다. 보험과 의료서비스 무상제공 및 연간 CCB(양육비) C$5400불을 만 18세까지 지원해 줌은 물론 의료보험(MSP)에서 제외된 치과에 연간C$750불, 검안과 안경에 연간C$300불 그리고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커 미니농구대와 스몰하키 연습망 등이 동네마다 설치 돼 있어 꼬마들의 놀이문화에 활력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州)정부 차원의 임신 출산 육아에 따른 서비스 및 직장에서의 각종 편의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엄마들의 눈치 보기나 경력 단절이라는 말은 들을 수 없었다. 그런데 12학년(고졸)까지 학비 면제는 기본이면서 점심시간의 교내 단체급식이 없다는 건 조금 이례적이었다. 대신 엄마

도시락을 권장하고 있음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대목이다. 교육재정이 없어서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정답이 무엇일까 그건 아직도 궁금하다.

그 외에도 성장기 아동복의 경우 만 12세미만 어린이 의류에 대해서 는 연방정부 세금도 주정부 세금도 모두 면세를 해주고 있어 어린이와 그 부모를 위한 나라 운영이 부럽기만 하다. 그리고 어린이용품의 불량이나 아동학대 혹은 스쿨존 30km를 어긴 과속 운전자에게는 보다 큰 중벌이 가해짐은 물론 어린이 유괴범은 경중과 관계없이 최고 사형이라고 한다. 어린이에 대한 국가와 사회적 배려가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은 결국 국가장래를 위한 미래의 희망 정치이기에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렇게 성장한 청소년들이 진학 1순위로 선망하고 있는 건 공대이며 다음이 간호학과라고 하는데 남녀구분 없이 선호하고 있다는 게 이색적이긴 하다. 직업군으로는 소방관 경찰관 선생님 공무원 등이 존경의 대상이고 역시 연봉이 좋기로는 엔지니어 항해사 의사 약사 간호사 회계사 법무사 변호사 등이며 검안사 안경사 건축사 설계사 사진사 요리사 정원사와 같은 전문직종이 이에 버금 하고 있다고들 입을 모으고 있다.

의식주 중 으뜸인 식(食)에 있어 장을 보면 물품의 종류에 따라 부가세가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하여 복잡할 듯 보이지만 정확한 기준이 있어 헷갈릴 염려는 없다. 기준이란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 먹거리는 면세인 반면 가공식품이나 기호식품을 구매하면 연방세(GST) 5%와 주세(PST) 7% 합계 12%의 부가세가 꼬박꼬박 부과된다.

쌀, 밀가루, 야채, 과일, 식빵, 계란, 고기, 생선, 흰우유, 베이글, 커피 등은 면세인 반면 가공된 초코우유라든가 요거트, 콜라, 소시지 과자, 라면, 아이스크림 등의 기호식품에는 반드시 12%의 세금이 붙는다. 그러니까 식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먹거리는 안정되고 저렴한 가격에 세금조차 면세해 줌으로써 저소득층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만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최대한 보장해주고 있는 셈이다.

서울에서 듣기로 밴쿠버 하면 주택이나 자동차 각종 세금과 교통비 등 물가가 비싸기로 소문난 도시였다. 그런데 보통사람이 보통으로 살아가는 데는 전혀 불편이 없는 생활경제시스템을 보면서 역시 다르구나 싶었다. 빵이 주식인 이들에게 팔뚝만 한 바게트 1개가 C$1불(약 900원)이고 흰 우유 4L는 C$4불(약 3600원)이다. 게다가 오렌지, 사과, 케일, 계란, 생닭, 소고기 등이 부담 없는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게 처음에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그게 생활의 전부는 분명 아니다. 하지만 기본 생필품의 저가 정책에 세금까지 면제해줌으로써 국민에게 주는 심리적인 편안함이야말로 사회 안정의 기본이 아닐까?

하지만 쇠약해진 노령층이나 본의 아니게 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 연금 및 각종 편의를 우선해 주고 세금, 교통비, 보험료, 입장료, 체육 활동비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는 있으나 공짜와 선심성 현찰 지급은 절대 금물이라고 한다.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위하는 으뜸 국가경영이 이런 것이 아닌가 새삼스럽지 않을 수 없다. 노인을 존경(敬)하고 아이를 소중(重)히 여기며 여성과 약자를 귀(貴)하게 대하면서 기본생활을 보장해주고 있는 본질만은 자유당, 보수당, 녹색당, 신민당 등 정권이 어찌 바뀌든 정책의 일관성엔 변함이 없다는데 그런 사회라면 살만한 세상이 아닐까. 오직 국민만을 위한 봉사가 정치의 본질이라는 초등학교 수준의 일반 상식이 새삼 새롭다.

별헤는 밤

글 • 윤동주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속의 별들을 다 헤일듯합니다.

가슴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헤는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오,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오,
아직 나의 靑春(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하나에 追憶(추억)과
별하나에 사랑과
별하나에 쓸쓸함과
별하나에 憧憬(동경)과
별하나에 詩(시)와
별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식 불러봅니다. 小學校(소학교)때 冊床(책상)을 같이 햇든 아이들의 일홈과 佩(패), 鏡(경), 玉(옥) 이런 異國少女(이국소녀)들의 일홈과 벌서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일홈과, 가난한 이웃사람들의 일홈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푸랑시쓰. 짬」 「라이넬. 마리아. 릴케」 이런 詩人(시인)의 일홈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이 멀 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北間島(북간도)에 게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러워
이많은 별빛이 나린 언덕우에
내 일홈자를 써보고,
흙으로 덥허 버리엿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버레는
부끄러운 일홈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一九四一, 十一, 五.)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우에 파란 잔디가 피여나듯이
내 일홈자 묻힌 언덕우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 할게외다.

– 1946년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수록된 원문

윤동주(1917년 ~ 1945년) • 일제치하 30년, 조선의 독립을 바라던 대다수의 국민들이 체념하고 다수의 문인들도 친일파로 변절 했지만, 윤동주는 희망을 잃어가고 있던 1940년대 대표적인 민족시인으로 활동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6개월 남짓 남겨놓고 일본 후쿠오카형무소에서 28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의 시 '별 헤는 밤'은 1946년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수록 되어있는데, 연희전문학교(현 연세대학교) 시절에 완성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세상에 알려진 것은 그의 사후였다.

블랙푸드, 가지로 만든 밥

글 • 권오분

여름만 되면 너무 덥거나 아니면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몇십 년을 양수리에서 땅을 갈고 꽃들을 심어 가꾸며 산귀래 식물원을 운영하던 친구가 올해처럼 지독한 비는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봄부터 초여름까지 환하게 피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던 구근화들이 산사태에 떠내려가 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 한 켠에 괜한 상실감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꽃이라도 피우고 사라졌으니 그나마 얼마나 다행이냐고, 위로랍시고 농담을 했습니다. 흘러내린 흙무더기를 처리할 생각을 하니 기가 막히다는 그녀에게 위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삽질도 괭이질도 자신이 없으니 음식이나 챙겨서 가져다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잠깐씩 만났던 코미디언 장미화 씨는, 내가 알려 준 가지밥을 집에서 해 먹어 보았는데 너무 맛있었다고 입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고 또 했습니다. 아가를 돌봐 주는 아주머니가 연변 사람인데 그곳에서는 흔히 먹는 음식이라고 하더라나요.

그날, 방송국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가지를 천 원어치 샀더니 한 보따리가 되더군요. 마당에 가지 몇 개가 자라고 있지만 여러 사람이 나눠 먹기에는 모자라기 때문에 양을 든든히 하려고 사러 간 건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싸더군요. "이게 정말 천원이에요?"라고 물었더니 아주머니는 저를 보며 "이상한 아줌마네. 그래도 한 개만 더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엣쑤다. 그 마음이 고마워서 두 개 더 주는 거유."했습니다. 가지 하나 더 든 비닐 봉지가 더욱 묵직하게 느껴졌지요.

그때 인심은 참으로 묘하다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더 달라는 이들에게는 얄밉다며 핀잔을 주고, 이렇게 싸면 농사꾼들에게는 도대체 얼마가 돌아가느냐고 걱정하는 이에게는 두 개나 덤으로 주다니. 우리네는 정말 정이 많은 민족이라는 걸 새삼 느꼈지요.

가지를 반으로 가른 다음 어슷하게 썬 뒤, 일반 밥보다 물을 조금 덜 잡은 쌀 위에 가지를 얹고 소금을 조금만 뿌려서 고슬한 느낌으로 밥을 지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담은 스티로폼 상자에 담아 가면 양수리까지 가도 전혀 식지 않으니, 망연자실해 있는 친구에게 좋은 점심 식사 한 끼 대접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곁들이는 양념장은 파, 통깨, 고춧가루, 참기름, 송송 썬 파, 매운 고추 등을 듬뿍 넣고 만들기만 하면 되니까 준비도 간단합니다.

가지는 시금치나 브로콜리보다 발암억제율이 두 배나 높습니다. 대부분의 채소는 열을 가하면 항암 효과가 줄어드는데, 가지는 영양이나 항암 성분 손실이 별로 없다니 이보다 더 좋은 음식이 어디에 있을까요. 부드러워서 먹기도 좋고 소화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특히 노인들에게 훌륭한 음식입니다.

웰빙 음식이 유행입니다. 블랙 푸드 중에서 가지는 값싸고, 맛있고, 이로운 성분도 많은데 칼로리는 거의 없으니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최고입니다.

가지나물 따로 무치고 가지밥을 비벼서 나물 반찬을 함께 먹으면 최고의 보양 밥상이 될 겁니다. 가지 잎을 튀

겨도 훌륭한 곁들이 음식이 되지요. 열매 없는 수꽃을 장식으로 쓰고, 약이 된다는 가지 꼭지도 튀겨 보세요. 꼭지에 있는 가시도 튀기면 부드러워진답니다. 여름에는 가지 많이 먹고 건강을 지키고, 농민들 수익도 좋아지기를.

권오분 • 동네에서 밥 퍼주는 아줌마로 소문난 권오분 님은 과거 「맑고 향기롭게」 소식지에 오랫동안 글을 연재했으며,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글들을 주로 써왔다. 〈제비꽃 편지〉 〈꽃으로 여는 세상〉 〈 아름다운 우리 숲 찾아가기〉(공저) 등이 있다.

월간 맑고 향기롭게 원고 모집 안내

살아가면서 느끼는 소소한 감동,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 가족 이야기 등 소중한 경험들을 자유롭게 써서 보내주세요.
맑고 향기롭게 회원, 길상사 신도 그리고 독자 참여 지면을 늘여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원고는 수시로 접수합니다. 법인 사무국으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clean94@hanmail.net

– 원고를 보내주실 때는 본인의 소개
(약력, 연락처, 주소, 전하고 싶은 말씀) 를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가 채택될 시 문화상품권(5만원)을 보내드립니다.

제3회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

행사 안내

- 일시 : 2019. 8. 11(일) 13:00~18:00
- 장소 : 서울 성북구 성북동 길상사 내
- 참가 부분 : 운문·산문
- 준비물 : 필기도구(연필, 지우개), 원고지받침대, 돗자리, 물
- 시제 : 당일 공개
- 작품 제목 : 자유롭게 정함

심사

- 심사방법 :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으로 나누어 심사
- 심사기준 : 주제의 적절성, 창작성, 독창성
- 심사위원 : 도종환(시인, 전 문체부장관), 박형준(시인, 동국대 국어국문문창과 교수), 홍용희(문학평론가, 경희사이버대 교수), 함명춘(시인, 출판인)

발표 및 시상식

- 발표일 : 8월 21일(수),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지
- 시상식 : 2019. 8. 25(일) 13:30

시상 내역

구 분	저학년		고학년		시상 내역
	운문	산문	운문	산문	
장원(무소유상)	각 1명 (총 4명)				상장 및 장학금 50만원
차상(맑음상)	각 2명 (총 8명)				상장 및 장학금 20만원
차하(향기상)	각 2명 (총 8명)				상장 및 장학금 10만원
장려상	각 5명 (총 20명)				상장 및 장학금 5만원

문의

Tel. 02)741–4696 (상담시간 :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2019년 숲 기행
맑고 향기로운 암자를 찾아서

1. 8월, 9월 숲기행 일정 안내

일자	장 소	특 성
8/24	강원도 설악산 안양암	신흥사의 3암자 순례와 울산바위 가는 길의 뛰어난 자연경관
9/28	경북 운달산 김룡사	백두대간의 뛰어난 자연경관을 가진 운달산과 김룡사의 산내 3암자 순례

2. 접수 안내

- (사)맑고 향기롭게 회원 및 길상사 신도 : 매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접수 가능 (8월 5일, 9월 2일)
- 일반인 : 매월 둘째 주 월요일부터 접수 가능(8월 12일, 9월 9일)

3. 참가비

- 회원 및 신도 : 30,000원
  일반인 : 40,000원
- 입금처 :
  KEB하나은행 257-890001-69804
  / 예금주 : 맑고 향기롭게
- 참가비 환불 원칙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할인 안내

- 전년도 3만 원 이상 후원 회원에 한하여 할인 가능하며 신규 회원은 후원금 납부하여 3개월 후 참여 가능
- 길상사 신도는 신도증 소지자로 한함
- 가족 참석은 직계 가족 1인으로 한함

5. 탑승지

- 길상사 일주문 : 오전 6시 10분 / 한성대역 5번출구 : 오전 6시 20분 / 양재역 2번 출구 오전 7시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세요)

6. 접수방법

- 전화 및 방문 접수(02-741-4696)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사는 일에 뜻을 함께해주세요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활동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본 모임 홈페이지 회원제안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그리고 회원님의 변경된 정보(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나 직접 발간하신 저서, 글,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 등이 있으면 사무국으로 방문 또는 전화, 편지, 전자 우편으로 알려주세요. 또한, 청정한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더욱 맑고 향기롭게 가꿀 수 있는 여러 활동이나 참신한 아이디어 공유해주실 분과의 만남을 기다립니다.

맑고 향기롭게 정기 자원활동 봉사자 모집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에서는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손가정 480여 가구에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밑반찬 2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설날, 추석)과 정월대보름, 부처님오신날에는 생필품을 나누고 연말에는 김장김치를 대상자 가정에 15kg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전에 끝나는 활동으로, 조금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쓱쓱 해 주실 수 있는 봉사자의 손길을 절실히 기다립니다. 경기가 어렵고, 사회가 혼란할수록 조그마한 관심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3월부터 10월 까지 둘째 목요일에는 김치 나눔을 진행합니다. 중앙모임 봉사자를 비롯하여 KTX 나눔이회, SJ파워 사랑봉사단의 많은 참여가 이어지고 있지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듯이 함께 협력하면 훨씬 더 쉽고 맛있게 김치를 전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활동**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활동은 오전에는 시설 청소, 주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르신과 어울려 민요, 국악 등 놀이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매월 둘째 토요일 오전 8시 30분, 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에 모여 이동합니다.

***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원활동**

서울 종로구 안국역 옆에 위치한 어르신 이용시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매일 2,000여 명이 넘는 어르신들께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으며, 맑고 향기롭게 자원활동팀은 매주 월요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오전 10시까지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식당으로 오셔서 맑고 향기롭게 자원활동팀을 찾으시면 됩니다.

*** 의류 리폼 자원활동 봉사자 모집**

맑고 향기롭게 의류리폼 자원활동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환경운동으로 안 입고, 못 입는 자투리 천을 이용하여 각종 소품이나 재활용품을 만들어 길상사 경내에 개점한 '맑고 향기로운 가게'를 통해 판매하고, 수익금은 세상 사업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길상사내 세계일화실에서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의류리폼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하실 봉사자를 찾습니다.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 혹은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CMS후원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일시 후원

뜻 깊은 일이나 기념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 본모임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 중에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세요.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 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 번호로 은행에 가시지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8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활동 : 5일(월) / 오전 10시~12시 / 세계일화실
- 일요특강(법정 스님 영상법문) : 25일(일) / 오전 11시 / 길상사 설법전
- 필사모임(법정 스님 저서 읽기)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 세심당, 세계일화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활동 : 매주 목, 금요일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김치 나눔 자원활동 : 3월~10월 둘째 목요일(8일)/맑고 향기롭게 반찬 나눔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양념이 묻어도 괜찮은 옷차림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 : 매주 월요일 / 오전 10시~오후 2시 / 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활동 / 수시 모집 중 / 자원 활동가 교육 후 봉사
- 진인 노인요양원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 자원활동 : 둘째 토요일(10일) / 오전 8시 30분 / 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아름다운 만남(청소년과 독거어르신과의 만남) : 셋째, 넷째 토요일(17, 24일)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숲기행 : 8월 24일(토) 강원도 설악산 안양암.
- 의류 재활용 봉사모임 : 매주 화요일 / 오후 12시 / 세계일화실
- 생태사찰 가꾸기 모임 : 매주 월, 목요일 / 길상사 경내
-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 : 짝수 달 매주 수요일 / 오후 1시 30분 / 세계일화실

〈정기 재정 후원〉

- 시각장애인 호송 단체 '부름의 전화' 정기 후원
- '월곡 청소년 센터' 위탁운영 및 물품 후원
- 서울 지방 변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 제주도 극빈 어르신 정기 물품 지원
- 자혜원(아동 양육시설)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맑고 향기롭게 모바일 앱(APP) 안내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활동소식과 법정 스님의 법문 영상, 잠언을 모바일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해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 모바일 버전과 앱(APP)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과 길상사 신도님의 많은 활용과 홍보(추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대구모임 (053-753-8883)

- **대구모임 2층은 회원모임 공간과 사무실로 3층은 법정스님 자료와 도서, 대중강연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3층 공간은 대관으로 공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홀로 어르신 밑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 매주 수요일 / 음식조리활동(10시~13시), 배달 및 말벗활동(19시~21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 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봉사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 / 목욕, 식사도움, 빨래정리, 말벗
- **청도 운문사 봉사 :** 매월 둘째 주 금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집결, 출발 / 공양 준비 및 공양재료 다듬기, 청소 등
- **햇살청소년자원사업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가정에 물품 및 문화정서 지원 프로그램 / 분기별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가정과 함께 명상 및 문화기행 진행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은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수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 홀로어르신 반찬 나눔 조리봉사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맑고향기롭게(소식지)발송 : 매월 초
* 사옥 관리 및 청소 : 월중 수시
* 홀로어르신 반찬 나눔 배달봉사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대구모임 3층 '시민서로배움터' 강좌 안내**

태극권, 형의권, 팔괘장 정통계승 및 기공활법 활기공 전수자이며 현재 대체의학 테라피를 진행하고 있는 백무현 선생님을 모시고, 매주 월, 수, 목 오후 8시에 몸살림 기공체조 강좌를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법정 스님 책읽기모임 '일기일회' 함께해요**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저녁7시에 회원들이 함께 모여, 법정 스님의 저서 읽기 모임인 '일기일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과 지혜를 책에서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함께 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밑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오전 10시~오후2시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 / 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 / 오후 1시 30분 / 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위안부 할머니 지원활동** :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지원활동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 열린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매월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 / 사무국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932-01-002933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광주모임에서는 동구 산수동에 지역 회원들의 친목과 불자들의 소통, 나눔의 공간으로 맑고 향기로운 가게 '무소유'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독서모임 :**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 / 매월 둘째 수요일 / 사무국
- **노래모임 :**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 환경 및 사찰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천연세숫비누, 빨랫비누, 천연 화장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길이 열리는 만큼 물이 흐르듯 본 모임의 사업은
100% 회원님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는 사업에 뜻을 함께 해주세요.

정기후원 / 편리한 CMS 자동이체 신청하기	
정기 후원 회원 가입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 접속 가입서 작성 맑고 향기롭게 사무국 방문 가입서 작성 **www.clean94.or.kr**
온라인 후원	
중앙모임 (02-741-4696)	일반사업 후원계좌 **국민 817-01-0253-129** **KEB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결식이웃 후원계좌 **국민 817-01-0255-458**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 100-013-787953** 장학금 후원계좌 **KEB하나 220-890015-10204**
대구모임 (053-753-8883)	**대구 002-05-016277-8**
광주모임 (062-236-3129)	**농협 355-0018-7812-13**
경남모임 (055-266-0170)	**농협 932-01-002933**

*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직접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경우에는 (사)맑고 향기롭게 지부 사무국으로 전화주셔서 회원등록 절차를 진행해주셔야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릴 수 있습니다.

길상사 소식 Tel:(02)3672-5945 / Fax:(02)3672-5947

금강경 독송 천일기도
- 일시 : 매일 오후 2시~4시
- 장소 : 극락전

※ 금강경 축원은 따로 접수받지 않습니다.

초하루기도 및 법회
- 일시 : 8월 1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천수다라니 33독 3년 기도
- 일시 : 8월 3일(토) 오후 6시 ~ 8시 30분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득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수능기도 입재
- 일시 : 8월 7일(수) 오후 2시
- 장소 : 극락전
- 수능기도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칠석기도
- 일시 : 8월 7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 8월 10일(토) 오후 8시 ~ 8월 11일(일) 새벽 3시 50분
- 장소 : 극락전

보름기도
- 일시 : 8월 15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추계관음기도
- 일시 : 8월 16일(금)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지장재일
- 일시 : 8월 18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관음재일
- 일시 : 8월 24일(토)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매달 관음재일에는 인등접수자 축원이 있습니다.

초하루기도 및 법회
- 일시 : 8월 30일(금)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백중 천도재 (49재)
- 백중 5재 : 8월 1일(목)
- 백중 6재 : 8월 8일(목)
- 시간 :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백중 막재 및 하안거 해제 법회
- 일시 : 8월 15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8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 기도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초하루 기도	8월 1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다라니 기도	8월 3일	오후 6시 ~ 8시 30분	극락전
수능기도 입재	8월 7일	오후 2시	극락전
칠석 기도	8월 7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8월 10일	오후 8시	극락전
성인 여름 선수련회	8월 8일	오후 2시	설법전
보름기도	8월 15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추계관음기도 입재	8월 16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8월 18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8월 24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초하루 기도	8월 30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 오전 9시 50분 / 저녁 7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40분 / 오전 9시 50분 / 저녁 7시	지장전
일요가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세심당
중 · 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세심당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세계 3대유적지. 황금빛 불탑의 나라

길상사

미얀마 성지순례

동참금
249만원

일정
5박 7일

출발
2019년 11월 18일(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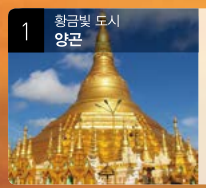
귀국
2019년 11월 24일(일)

항공편
대한항공 직항

문의 | 종무소
02) 3672-59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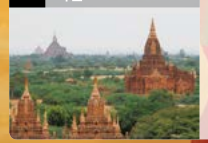
여정

1 황금빛 도시 **양곤**



- 차옥타지 와불
- 로카찬다 파고다
- 까바예 파고다
- 쉐다곤 파고다

2 2,500개 불탑의 도시 **바간**



- 쉐산도 파고다
- 아난다 사원
- 쉐지곤 파고다
- 띨로민로 사원
- 마누하 파고다

3 탁발, 탁발공양 **만달레이**

- 쿠도도 파고다, 마하무니
- 마하간다욤 수도원
- 만달레이 힐
- 우빼인 다리

4 물의 도시 **헤호**

- 팡도우 파고다
- 목이 긴 카렌족

불기 2563년 길상사 불교대학

경전반 / 불교입문 / 불교대학

2019년 하반기 수강생 모집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
2019년도 하반기 길상사 불교대학 / 불교입문 / 경전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불교에 대한 심도있고 바른 지견을 갖추고
수행의 경륜이 깊은 스님들과 재가법사들로 이루어진 강사진이
불교 전반에 대한 명쾌한 이해와 굳건한 신심을 바탕으로
바른 수행의 길로 안내합니다.

경 전 반

- 개 강 : **9월 3일(화)**
- 응시자격 : 누구나 수강 가능
- 강의시간 : 매주 (화) 오후 2시~4시
- 강의기간 : 4개월(14주)
- 과 목 : 화엄경
- 수 강 료 : 7만원(교재비 별도)

불 교 입 문

- 개 강 : **9월 4일(수)**
- 응시자격 : 불교에 처음 입문하고자 하는 분 누구나
- 강의시간 : 매주 (수) 오후 2시~4시
- 강의기간 : 3개월(13주)
- 수 강 료 : 8만원(교재비 포함)

불 교 대 학

- 개 강 : **9월 5일(목)**
- 응시자격 : 기본 교육수료자, 조계종 신도증 소지자
- 강의시간 : 매주 (목) 오후 2시~4시
- 강의기간 : 5개월(19주)
- 수 강 료 : 학기등록 20만원(1년 40만원)

■ **강의 장소** 설법전
■ **상담 및 접수** 종무소 02)3672-5945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 상 사